7th 광주비엔날레 2008.9.5~11.9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9월5일~11월9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지역 곳곳에서 66일 동안 펼쳐진다.

특별한 주제 없이 '일년간의 전시(Annual Report)'를 제목으로 치러지는 이번 비엔날레는 △주목할만한 전시회를 모은 '길 위에서(On the Road)' △젊은 큐레이터와 디렉터들의 실험적 전시 기획인 '제안(Position Papers)' △가능성을 인정받은 신예 미술인들의 마당인 '끼워 넣기(Insertions)' 등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는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1891~1977)과 '건물 자르기'라는 새로운 기법을 선보인 미국 작가 고든 마타 클락(Gordon Matta-Clark·1943~1978) 등의 작품이 출품돼 동서양 작가들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세계 현대 미술의 보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 광주비엔날레 :

세계 현대미술 보고서

▲허백련에서 마타 클락까지=주제를 정해 작가와 작품을 선정했던 과거의 전시 관행에서 벗어난 개방형 전시인 '길 위에서' 섹션에는 2007~2008년 사이 세계 곳곳에서 열렸던 대표 전시 30~40여개가 초청된다. '전시회를 전시하는 전시회'라는 독특한 형태의 섹션이다. 공간적인 제한 등의 이유로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 각국에서 열린 전시를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쿠이 엔위저(Okui Enwezor) 예술 총감독과 김현진·랜지트 호스코테 큐레이터는 지난해 9월부터 국내를 비롯해 유럽, 남미 등지의 리서치를 통해 '길 위에서' 섹션에 초대할 전시회를 대부분 확정한 상태다.

국내에선 '허백련'전 '우발적 커뮤니티'전 등이, 해외에서는'마타 클락'전 등이 선정됐다.

'허백련'전은 허백련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대표작 50여 점을 선보인 광주 의재미술관의 상설 전시회이다. '길 위에서' 섹션의 전시 장소가 광주시립미술관 1층 전시실이지만 '허백련'전은 장소의 특성을 살려 의재미술관에서 그대로 전시한다. 무등산 기슭에서 차밭을 일구며 예술 혼을 불태운 허백련 선생의 뜻을 기르기 위해서다.

'우발적 커뮤니티'전은 지난해 계원예술대학 갤러리27에서 열렸고 잔 알타이, 니나 카넬, 루노 라고마르시노, 지미 로버트, 피진 콜렉티, 이주요, 이우연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체에 대한 재해석을 담은 비디오, 설치, 드로잉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마타 클락'전은 지난해 뉴욕 휘트니미술관 등지에서 열렸으며 집이나 공장을 반으로 가르거나, 벽체를 기하학적 모양으로 뚫었던 마타 클락의 작품 세계와 작업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실험적 전시, 미래를 본다=이번 비엔날레는 젊은 큐레이터의 실험적인 전시와 향후 미술계를 이끌 신예 작가들의 작품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제안(Position Papers)' 섹션은 젊은 큐레이터와 디렉터들의 새로운 기획아이디어를 그대로 수용한 전시다. 세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큐레이터들의 기획안을 선별해 5개의 '옴니버스형' 소규모 전시로 꾸며진다.

'제안' 섹션 큐레이터로 광주롯데화랑 박성현씨, 미술비평가 김장언씨, 필리핀 대학교의 페트릭 D 플로레스 교수, 미국 뉴올리언즈 현대미술센터 클레어 탄콘스씨, 2006년 다카르 아프리카현대미술 비엔날레의 큐레이터 압델라 카룸씨가 선정됐다.

제7회 비엔날레를 위해 새롭게 구상된 작업과 신예 작가들의 역동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끼워 넣기(Insertions)' 섹션에는 4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현재 작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며, 미술을 통해 정치적인 담론을 만들어 내고 있는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젊은 작가들도 대거 섭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정치 상황을 석고 구조물을 통해 표현한 설치 작가 알로라, 서구 모더니즘의 유산을 전복시켰다는 평을 받는 일본의 히로시 수기토 등의 작가들이 '끼워 넣기' 섹션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오쿠이 엔위저 예술 총감독은 "작가 선정 등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관행을 탈피한 새로운 전시 기획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대 미술의 비평적 담론을 생산하는 현장을 제공하고, 올해 열린 국제 미술 행사 중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고을 광주 곳곳 9월부터 66일간의 예술 축제

동서양 작가 아울러…'끼워 넣기' 섹션 등 주목

◀제7회 광주비엔날레의 참여 작가와 작품 선정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개막 준비가 순조롭다. 사진은 지난 2006년에 열렸던 제6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모습.

위에서부터. '마타 클락'전,'알로라'전,'우발적 커뮤니티'전

'의재 허백련 상설'전

최근 오쿠이 엔위저 예술 총감독 등 재단 관계자들이 작가·작품 선정을 위해 방문했던 뉴욕현대미술관(MOMA) 전시회 모습.